

‘궤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에 세금 인상?…세율 조정 고심

세율 낮은 궤련형 전자담배…담뱃세 되레 줄어 “서민 증세 시동…‘박근혜 정부 증세 2탄’” 지적

정부가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 담배(궤련)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궤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 기반 확보 차원에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궤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담배 세율 체계는 궤련이 궤련형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제세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궤련의 경우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이 붙어 제세부담금은 총 3323원이다. 궤련형 전자담배는 이보다 낮은 3004원이다.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개별소비세 52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0원 등이 궤련보다 적다. 비율로 따지면 궤련 대비 9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궤련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이견 훨씬 적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세수가 적으니까 세수를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담배가 궤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워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담배세 관련된 특히 전자담배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 효과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며 “일반 담배(궤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 (담배 세율도) 함께 취급이 돼야 된다”며 “저는 전자담배도 제가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인체에 안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같은 이 범주로 취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세수를 메울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담뱃세 인상 초석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자 세수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인 16.9%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는 당초 잡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궤련에서 궤련형 전자담배로 전환이 늘면서 담배 관련 세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0~2022년 3년간 담배 판매량과 제세 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에서 지난해 36억3000만갑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궤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3억8000만갑에서 5억4000만갑으로 늘어났으나 궤련 담배 판매량이 32억1000만갑에서 30억9000만갑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국민들 행동을 교정하는 ‘교정세’ 성격을 지니는 담뱃세부터 증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담배 유해성을 얘기하면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것처럼 일명 ‘죄악세’를 언급하면서 서민 증세 시동을 거는 셈”이라며 “박근혜 정부 증세 2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도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궤련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고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어 세금 인상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 ‘현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궤련과 궤련형 전자담배의 외부 비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현행 담배 과세 체계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과중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궤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자담배 가격은 4500원 선에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세율인상을 할 경우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재부가 가격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무게감 있게 검토했으나 물가 등 민심을 고려해 지난 17일 유류세 인하를 4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기에 때문에 현재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법안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는 등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수 펴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유 교수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상속세 감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SK 등 대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대기업·자산가들에 대해 감세해준 뒤에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위기에 처하자 서민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노브랜드 버거, '100% 식물성 버거 빵' 출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브랜드버거 서울시청점에서 모델들이 버터, 우유, 계란 등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은 100% 식물성 '베러 번(Better Bun)'으로 만든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아성다이소, '원예용품 기획전' 진행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원예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원예용품에 트렌디한 디자인과 컬러를 담은 '네오클로버 시리즈'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원예도구, 분갈이 용품 등 총 60여종의 상품을 구성했다.

'클로버 패턴토시'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톤 다운 된 브라운과 올리브 색감을 사용했고 클로버 패턴이 귀여워 눈길을 사로잡는 아이템이다. 원예장갑은 디자인이 화려한 패턴과 심플한 패턴 두 가지로 구성했다.

뉴스

휘발유 1700원 뚫을까...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글로벌 악재 '점점'

美 전략비축유 재구매·中 경기 회복 등 국제유가 ↑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며 리터(ℓ)당 17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며 휘발유 가격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61원이다. 지난 4월 휘발유 가격은 약 4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을 돌파했는데, 이후 2주 동안 연일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조정됐는데, 앞으로 4개월 더 인하 폭이 유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하루 40km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자동차로 주행할 경우 월 2만5000원 유류비가 줄어든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를 뒤따라가는 만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상승세를 탄 휘발유 가격을 끌어내리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3일 OPEC+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OPEC+는 올해 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OPEC+의 감산 소식에 지난달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려갔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4.76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85.93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0.83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 재구매를 시사하며,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하반기 전략비축유를 채워 넣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1년 동안 2억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시장에 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6~7월까지 계

획된 전략비축유 방출을 마무리 짓고, 다시 원유를 시장에서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EIA는 올해 원유 가격에 대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기준으로 2.5% 높여 잡은 85.01달러로 예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리오프닝)로 인해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EIA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71만 배럴, 총 1586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중국의 경기회복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국내 에너지연구기관 역시 올해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의 '2023년 국제 원유 시장 상황과 유가 전망'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에도 석유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OPEC+ 감산과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로 하반기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2023년에도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선욱기자

광양경제청, 하노버 산업박람회 연계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일환, 유럽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2023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2023)' 전시회에 참여해 광양만권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 행보를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헤라우스 게헨베하(Heraeus GmbH, 에너

지 분야), 텍스(Degson, EV충전케이블 제조) 등 9개사를 대상으로 광양만권 투자환경, 인센티브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외부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정보는 물론 광양만권 항만 배후부지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 등을 설명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분야 등 핵심전략산업 투자확대로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기업이 광양만권에 투자할 수 있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전시회에 상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현장초청도 추진하며 투자유치 적극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